

Research Center

2015년 4월 6일

# 투자전략 Daily

- Strategic Insight

2015년 4월 포트폴리오 Q&A : 증권

- 이머징마켓 동향

경기부양기대, 지표 개선에 주요 이머징 강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영원무역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KCC 외 5개 종목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켈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자전략/시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 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량 분석 | 안혁 ☎ 3276-6272

파생 / ET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 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채권 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해외채권 | 진은정 ☎ 3276-6231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유가증권	구분		3/27(금)	3/30(월)	3/31(화)	4/1(수)	4/2(목)	4/3(금)
	종합주가지수		2,019.80	2,030.04	2,041.03	2,028.45	2,029.07	2,045.42
	등락폭		-2.76	10.24	10.99	-12.58	0.62	16.35
	등락종목	상승(상한)	368(9)	508(14)	485(10)	425(11)	451(8)	556(7)
		하락(하한)	447(1)	305(2)	321(0)	395(0)	340(1)	253(1)
	ADR		103.68	106.05	107.07	108.28	107.42	111.29
	이격도	10 일	99.58	99.87	100.36	99.74	99.81	100.58
		20 일	100.47	100.90	101.34	100.64	100.60	101.33
	투자심리		50	50	5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449	440	556	543	656	493
거래대금 (십억 원)		5,111	4,465	5,367	5,386	6,007	4,452	
코스닥	코스닥지수		640.12	646.74	650.49	650.23	650.57	658.04
	등락폭		-2.41	6.62	3.75	-0.26	0.34	7.47
	등락종목	상승(상한)	368(7)	508(8)	485(15)	425(12)	451(15)	685(9)
		하락(하한)	447(5)	305(2)	321(1)	395(4)	340(6)	308(2)
	ADR		95.48	97.97	97.37	95.29	94.92	98.56
	이격도	10 일	100.20	101.06	101.42	101.04	100.80	101.68
		20 일	101.07	101.92	102.31	102.11	102.01	103.00
	투자심리		50	50	5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592	467	525	513	630	522
		거래대금 (십억 원)	3,213	2,722	3,358	2,946	3,674	3,214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타	
유가증권	매수	2,828.1	709.6	880.5	167.9	108.9	149.5	95.2	26.3	332.684	60.8
	매도	2,951.0	668.8	793.3	167.7	92.5	217.5	58.5	17.1	239.9	65.8
	순매수	-122.9	40.8	87.2	0.2	16.3	-68.0	36.7	9.2	92.8	-5.1
	4월 누계	99.1	-48.3	-66.1	33.2	-5.8	-178.5	-51.2	6.0	130.3	15.2
	15년 누계	-1,304.7	3,098.8	-3,052.4	-2,278.9	67.5	-2,748.6	-423.9	121.9	2,209.5	1,258.3
코스닥	매수	2,899.7	154.9	162.9	44.9	16.6	34.8	18.9	6.8	40.9	27.2
	매도	2,935.0	113.9	162.4	46.3	13.1	57.8	11.0	4.4	29.8	33.3
	순매수	-35.3	40.9	0.5	-1.4	3.5	-23.0	7.8	2.4	11.1	-6.1
	4월 누계	11.2	33.0	-32.8	-28.7	15.6	-38.6	-11.9	1.2	29.6	-11.4
	15년 누계	532.3	-179.8	193.2	-108.2	173.9	-37.8	-94.6	24.2	235.7	-545.8

- ▶ 증권 업종의 강세: 저금리로 인한 채권 평가 이익과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기대감
- ▶ 업종 의견은 '중립'. 그러나 예상을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은 트레이딩 기회
- ▶ 증권주 주가는 밸류에이션보다 모멘텀이 지배: 각 증권사별 차별화된 움직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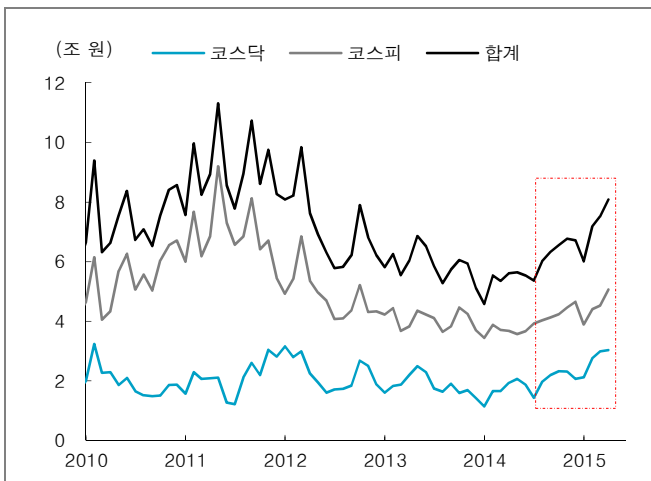
주: 증권거래소 업종 분류 기준, 2015. 4. 3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Q1 : 저금리 기조 지속성 여부  
부와 증권 업종 전망**

**Q1> (박소연)** 증권 업종은 올해 1분기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업종 중 하나입니다.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보유 채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 급증한데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비중이 높은 중소형주가 지속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3년 5.6조원에 불과했던 유가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2015년 들어 7.6조원 수준까지 상승했고, 코스닥의 경우 일평균 거래대금이 작년 6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 3월에는 3조원을 넘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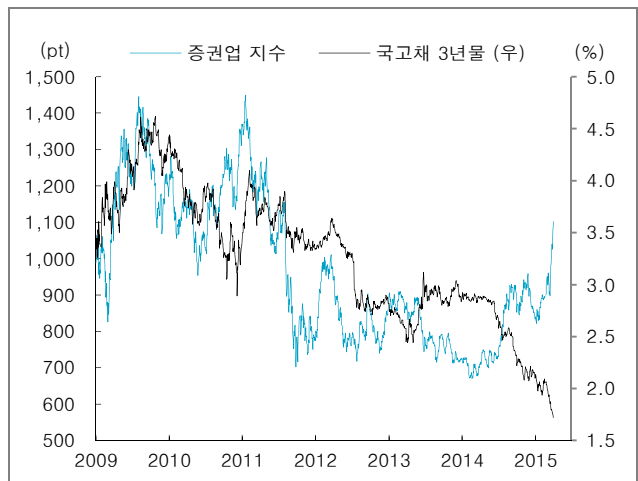
결국 3번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일드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증권업종 지수와 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을 기점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던 금리와 증권 업종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다보니 주식 직접투자, ELS나 ELD 등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자금이 몰리는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저금리 국면은 이제 초입 단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향후 증권업종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림 2] 코스피/코스닥 일 평균 거래대금**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3]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증권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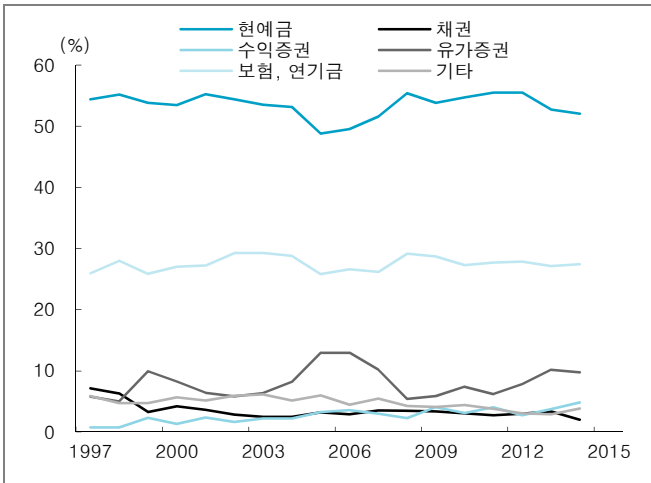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A1: 지속성 여부는 불확실,  
다만 실적 개선으로 인한  
트레이딩 기회 유요**

**A1> (이철호)** 3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권주를 매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 답변은 ‘지속성에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크게 개선되었으니 트레이딩 기회 정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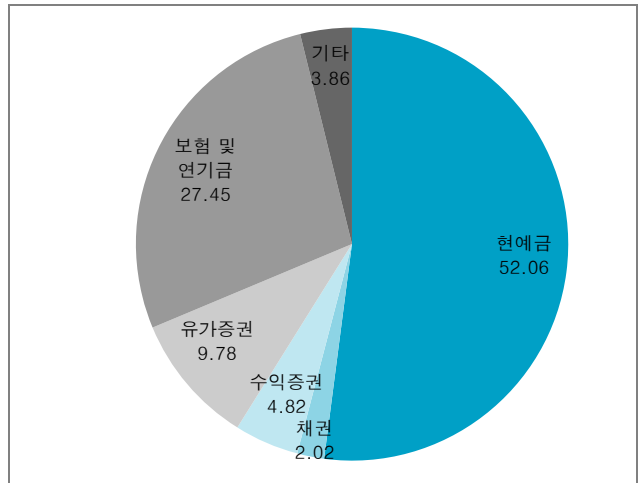
우선, 일본의 경우 일찌감치 초저금리 시대에 돌입했지만 가계가 위험자산 편입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에서 유행했던 ‘저축에서 투자의 시대’라는 캐치 프레이즈의 원조는 2000년대 초반의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보다 훨씬 이른 2000년대 초에 저금리 기조로 접어든 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나라의 금융자산은 통상적인 자산군 분류 상 안전자산 범주에 계속 머무르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세후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두 국가의 증권사 모두 주식 약정보다는 국내외 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한 자산관리영업에 경쟁력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이후의 운명을 가른 것 같습니다.

[그림 4] 일본 가계 금융자산 구성비 추이



자료: Bank of Japan,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일본 가계 금융자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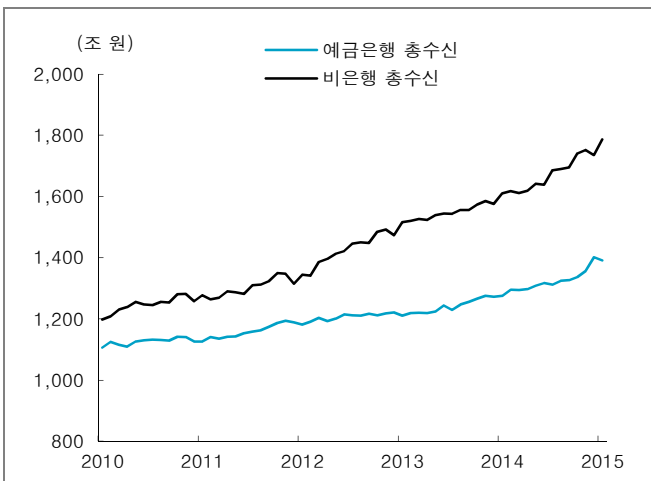


주: CY2014 기준

자료: Bank of Japan,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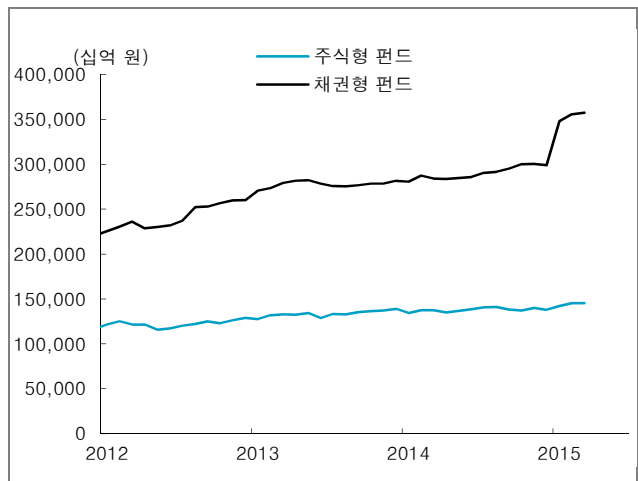
아울러, 작년 8월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금융권역별, 금융상품별 자금 유입 현황을 보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권사들의 자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통적인 주식 투자와는 성격과 내용이 다릅니다. ELS와 CMA로 알려진 내용상 RP가 이끌고 있습니다. RP를 통한 자산의 증가는 작년 삼성SDS, 제일모직의 공모 후 이탈 자금을 붙들기 위한 차원에서 증권사들이 3% 이상의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평가절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수익률도 6개월 정도만 부담하기에, 만기 도래 시점에서 주식시장 전망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ELS 및 펀드 등으로 재유치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그림 6] 금융권 수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7] 국내 주식/채권 펀드 및 일임설정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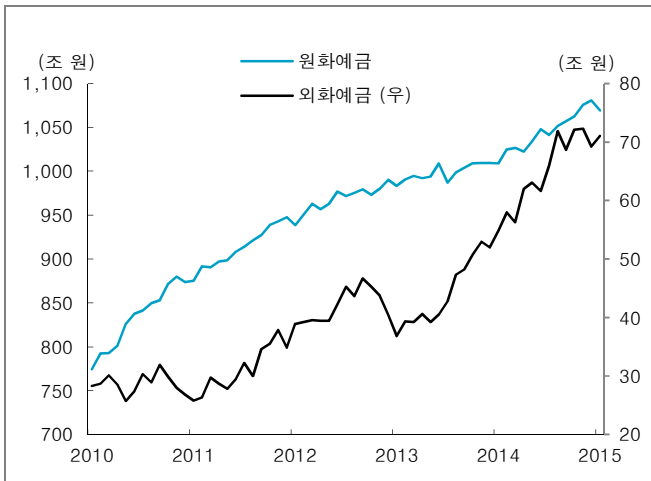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증권

무엇보다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전통적 의미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안정적이고 꾸준하며 예금금리보다는 높은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은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신용공여와 예탁금은 늘었지만 코스닥 시장과 KOSPI의 상승을 반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반면, 공모주식형펀드에서의 자금유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세대비 4~6% 수준의 임대료 수익을 노린 부동산 매매도 늘어나고 있고, 보험/연금 등 장기기관투자자들은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 자금의 이동을 예금/채권에서 주식을 중심으로 한 위험자산으로의 이동을 뜻하는 ‘머니 무브(money move)’ 보다는 단기적 견지에서는 ‘수익률 사냥(yield hunting)’, 장기적 견지에서는 ‘Search for yield’ 로 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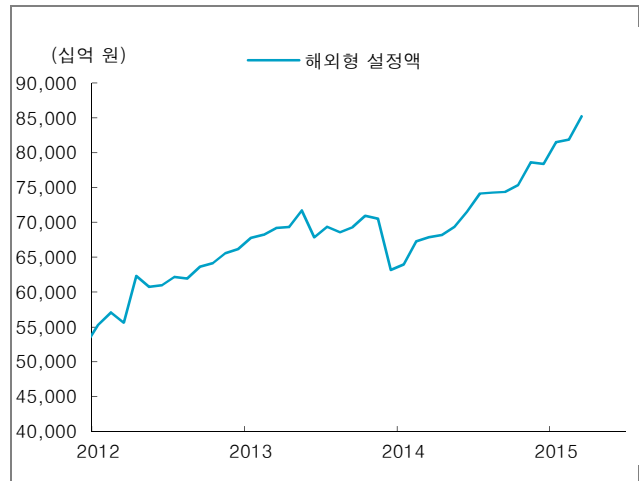
국내 증권사들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상품 구색을 다양화하고, 본사의 자산운용 역량을 중심으로 내부 조직정비도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최근 일어나는 현상은 증권사에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이 의미있는 수익으로 연결되려면 한 동안은 더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권사가 취급하는 서비스 중 시황이 뒷받침된다는 전제 하에는 브로커리지의 마진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금융상품 판매 중심의 자산관리 서비스의 마진은 30~100bp 정도에 불과하니 의미있는 수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림 8] 2014년 중반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은행 외환예금



자료: 한국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9] 해외형 펀드 및 투자일임 설정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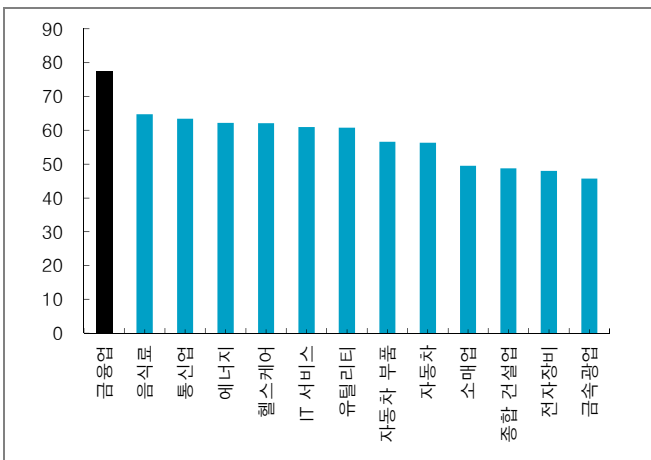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투자증권

## Q2 증권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스탠스와 업황에 미치는 영향

**Q2> (박소연)** 그간 금융투자업은 가장 많은 규제에 노출된 산업이었습니다. 행정연구원에 의하면 금융업종의 규제지수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로 인해 시장 건전성이 강화된 측면도 있겠지만, 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ELW 시장의 경우 2012년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 거래부진 종목 상장폐지, 발행조건 표준화 조치 등으로 시장규모가 4분의 1로 감소하자 최근에서야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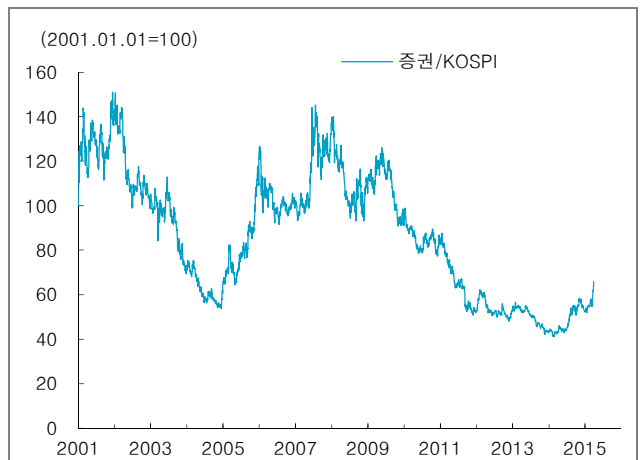
위원님께서도 이미 작년 말부터 보고서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증권업 규제 완화는 현 정부의 최대 화두입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처럼 '금지하는 것 빼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취임한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 역시 취임사에서 '규제 개혁'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슈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규제 완화가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업종의 선전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그림 10] 금융업 및 주요 업종의 규제 지수



주: 저량규제지수 기준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정리

[그림 11] 코스피 대비 증권업 지수의 상대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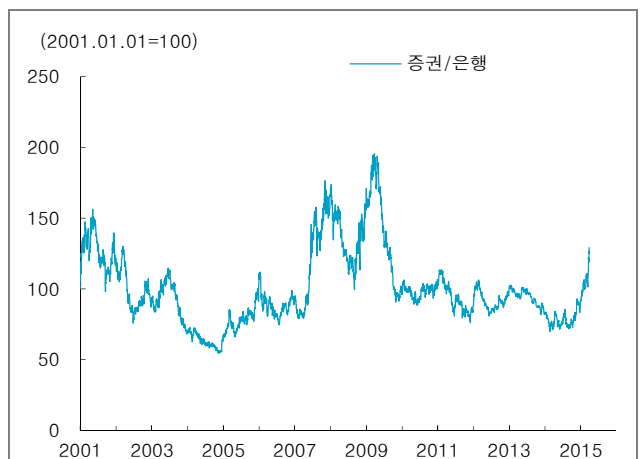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보험업 대비 증권업 지수의 상대강도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은행업 대비 증권업 지수의 상대강도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A2> (이철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핵심 금융규제 당국의 신임 주장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완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최근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음에 따라 정책 모멘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당국의 정책 방향성은 2012년부터 전환했습니다. ‘거래관련 수수료 20% 일괄인하, 세제혜택펀드 출시’ 등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듬해 2013년말의 ‘금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후 ‘증권업 M&A 활성화 방안’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2013년은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채권운용 손실이 거래대금 감소 추세와 맞물려 수익의 큰 폭 악화를 겪었고, 이듬해 2014년 증권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최근 ELS 확대 기반에는  
NCR 제도 개선이 있음**

정책 효과는 1~2년의 터울을 두고 나타나기 마련인데, 최근 ELS의 확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조치는 작년 4월에 발표되었던 ‘NCR 규제 변화’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이를 ‘1997년 이후 가장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었지요. 아무튼 작년 4월은 증권업종 지수가 이전 수 년간의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돌아선 변곡점이었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규제 완화의 초기 국면이라는 점을 전제로 증권업종 지수의 중장기적인 선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증권사 경영진과 자본시장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단단히 차리지 않으면 금융권 내에 서 증권업의 존재감이 미미해질 것으로 걱정합니다. 증권사들의 고객 저변이 너무 취약하고, 당장의 수익에 집착하다보니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등한시하는 관행이 뿌리 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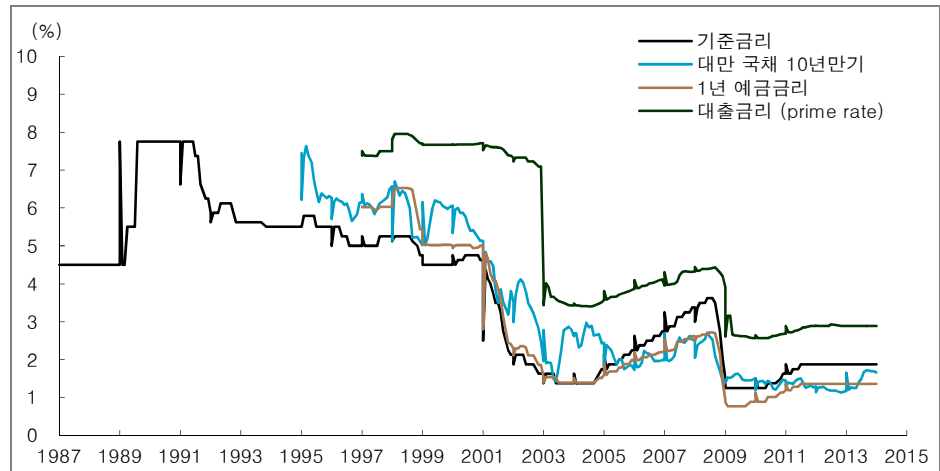
**Case study : 대만의 증권업**

몇 해 전 대만 증권업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알게 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IT 버블 직후 미국보다 금리가 낮게 형성되었던 대만의 경우에도 증권업의 존재감은 이제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따지면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구조’와 ‘대만의 증권사들이 은행/보험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너무 난립한 탓’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의 핵심 가격 변수가 금리/환율/주가인데 대만 당국은 금리와 환율을 재무구조가 취약한 자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맞추어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가져갔습니다. 세 가지 변수 중 두 가지를 기업에 유리하게 가져간 결과 수출을 통해 대만 국민들의 부는 꾸준히 축적되지요. GDP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은 대만이 한국, 일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림 14] 대만의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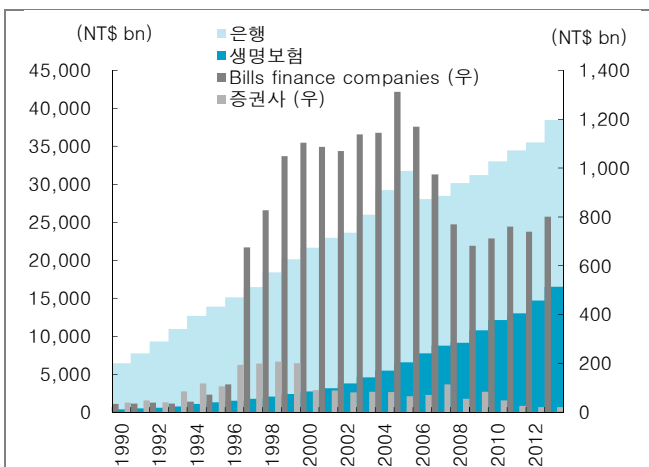


자료: 대만중앙은행, 한국투자증권

다만, 대만은 이렇게 축적된 부를 국내 주식 대신, 주로 은행과 보험사를 보유한 금융 그룹의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채권에 주로 투자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부를 축적하는 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한 가운데, 자국보다 금리가 높은 해외로 자금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대형금융그룹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유는 증권사에 비해 해외금융상품 구색(내용상 글로벌 IB 상품의 판매를 대행)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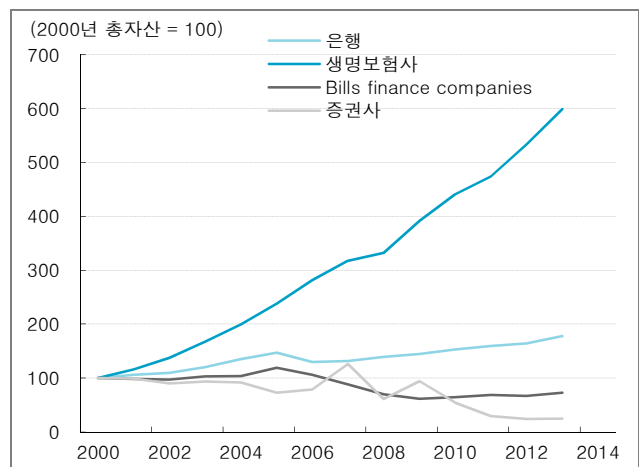
대만 증권업에 관한 제 의문은 ‘왜 주식시장이 자국 국민의 부를 축적하는 대상이 되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이에 따른 취약한 투자자 보호, 소유구조와 연관된 지배구조 문제점’ 등이 있는데, 한국 증권업 역시 이런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때로는 걱정이 됩니다. 최근 두 분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육성'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장기적인 금융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경쟁했으면 합니다.

[그림 15] 대만의 금융권역별 자산 추이



자료: 대만중앙은행,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대만의 금융권역별 자산 추이 비교



주: 한국의 종금과 유사한 형태의 Bill finance company는 단기자금 시장에서 CP 중개가 주 업무

자료: 대만중앙은행, 한국투자증권

Q3: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형 vs 소형 증권사의  
경쟁력 비교

**Q3> (박소연)** 금융투자업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브로커리지 부문의 위축으로 수익모델 다변화 시도가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지점 통폐합을 감행하고, 자산배분과 자산관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소형사보다는 자본력이 충분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열사를 보유한 금융지주계열 대형 증권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 향후 도입되는 NCR 제도의 경우 산식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대형사들에게 유리해, 중소형사는 NCR 비율 유지를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한 라이선스를 반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종 내 구조조정과 영역 특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1)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거나 2)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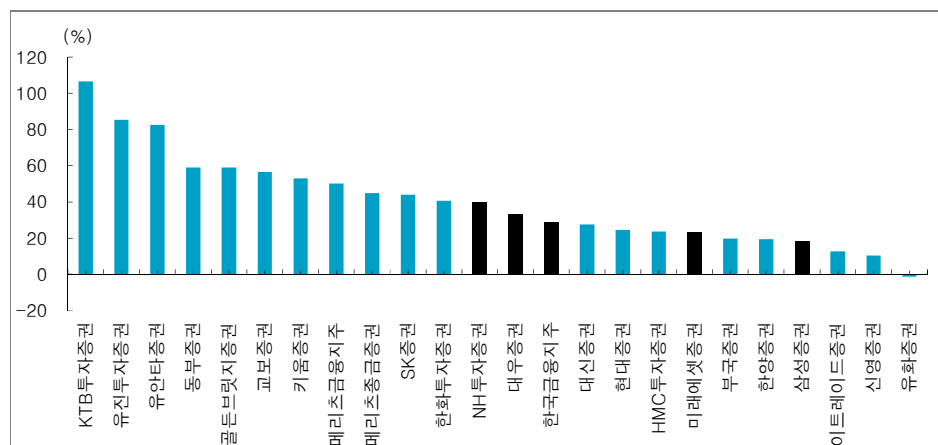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 증권업종 내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대형사가 아니라 중소형사였습니다.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일 것 같은데,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형 증권사의 투자매력이 더 높은 것 아닐까요?

[그림 17] NCR 제도 개선방안 개요



주: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은 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  
자료: 금융위 보도자료

[그림 18] 국내 증권주 1분기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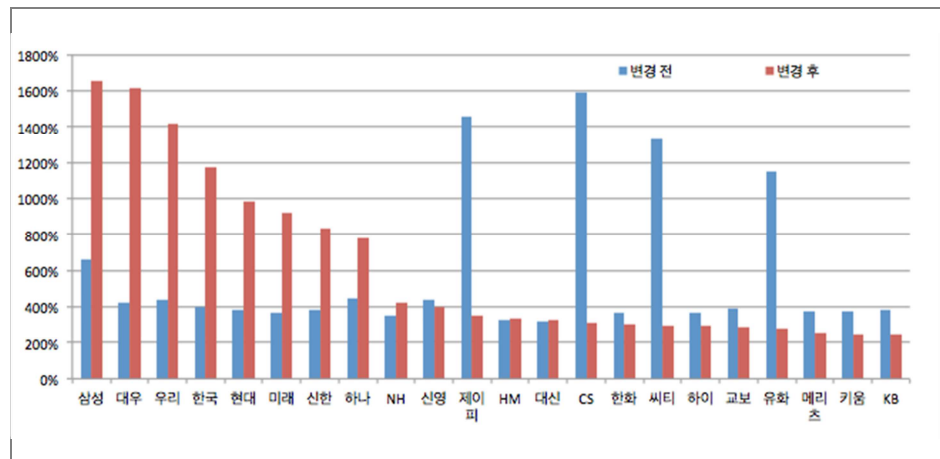
### A3: 증권사의 크기 여부보다 금융지주 계열 여부가 증권사의 경쟁력에 더 영향 미칠 것

### NCR 제도 변화 : 대형 증권사의 활동 범위 확대 계기

**A3> (이철호)** 질문에 51% 정도 동의합니다. 49%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대형 증권사보다 금융지주, 자산운용사 계열의 증권사의 경쟁력과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본시장을 이끌어가는 금융기관으로써 증권사들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신, 대형사들이 자본시장을 장악하는 가운데 금융지주계열 증권사와 독립증권사로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대형사가 유리할 수 밖에 없을 결정적인 조치는 작년 4월의 NCR 제도 변화였습니다. 바뀐 NCR 제도는 내용상 자기자본 규모와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증권사들이 위험자산을 더 늘리도록 장려하는 취지로 인해 대형증권사들의 활동 범위가 중소형사에 비해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그림 19] 제도 변경 전후의 주요 증권사 별 NCR 변화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투자증권 추정

대형사가 위험자산 보유를 늘린다는 것은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총자산/자기자본’으로 측정한 재무 레버리지는 작년말 현재 약 8배 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글로벌 IB들은 동 비율이 30배를 쉽게 넘긴 것으로 기억합니다. 규제가 강화된 지금은 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2016년에 NCR제도 완화와 맞물려 시행되는 재무 레버리지 규제도 (예치금, 자산 제외할 경우) 11배이므로 아직 여유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에 있어 레버리지는 자본의 효율적 활용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니 주주에게도 유리할 것입니다.

### 주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의 증권사 위상 변화 : 금융지주계열 증권사들의 약진은 전세계적 트렌드

다만, 주요국 자본시장에서 증권사들의 존재감이 적잖이 줄어든 점도 특징적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미국에서도 Bear Sterns, Lehman Brothers 등 두 군데 독립 IB가 사라졌지요. Bear Sterns를 인수한 JP Morgan의 위상이 매우 커졌고, Lehman Brothers의 아시아 사업 부문은 일본의 Nomura에 인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독립 증권사 중 나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미국에서는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일본에서는 Nomura Holdings 정도인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본시장에서 거대자본을 앞세운 금융지주계열 증권사들의 약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 Q4: 증권주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

Q4> (박소연) 증권 업종을 둘러싼 영업환경과 규제완화는 현재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밸류에이션이 고민입니다. 증권업종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이미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해 가격 매력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업종 전체의 12개월 선행 PB가 0.93배까지 상승했고 일부 증권사의 12개월 선행 PB는 1.5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을 줄 경우 큰 폭의 조정이 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조정폭과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2) 조정 후 재상승시 어떤 회사와 종목에 집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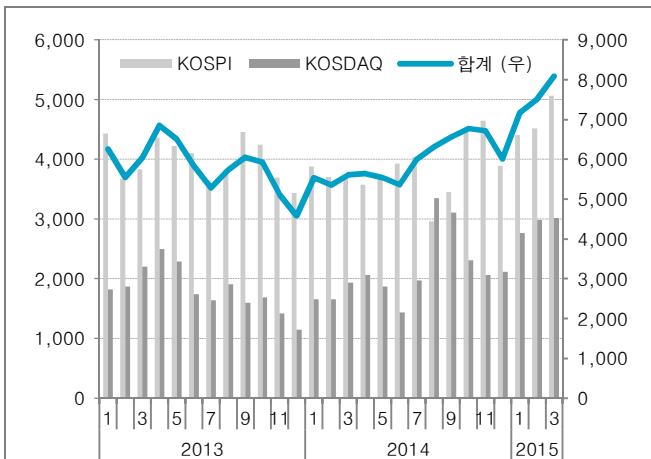
#### A4: 그동안 증권주 주가는 밸류에이션보다 모멘텀이 지배

A4> (이철호)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동안 증권주 주가는 밸류에이션보다 모멘텀이 지배해 왔었습니다. 그 원인은 증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권사의 실적을 가장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사고, 나빠진다면 파는 것이겠지요. 이런 풍토에서는 밸류에이션보다 모멘텀이 더 중요할 수 밖에 없겠지요. 모멘텀 면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거래량 지표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제가 주의깊게 관찰하는 지표는 (1)시가총액회전율, (2)증권업종의 거래대금비중과 시가총액비중의 비율입니다.

#### 주목할만한 지표 : (1)시가총액회전율 (2)증권업종의 거래대금비중 과 시가총액비중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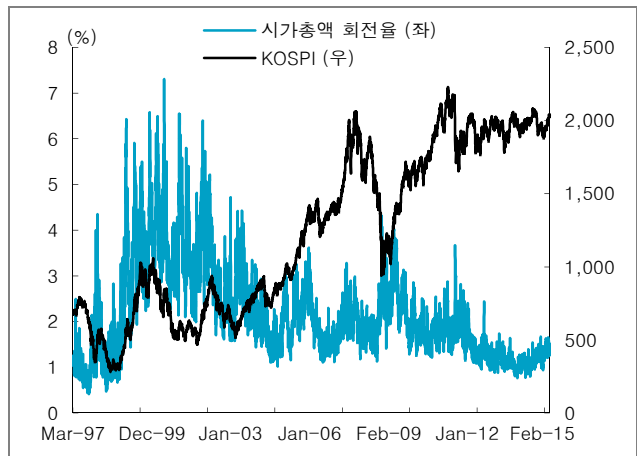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회전율은 일반적으로 150~200%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요.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기관투자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150% 내외로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증권주의 단기 주가 향배를 결정해온 것이 거래대금 모멘텀이었는데, 시가총액회전율이 200%에 근접하면 단기적으로 고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림 20] 2013년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주: 단위는 십억 원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21] 주식시장 시가총액 회전율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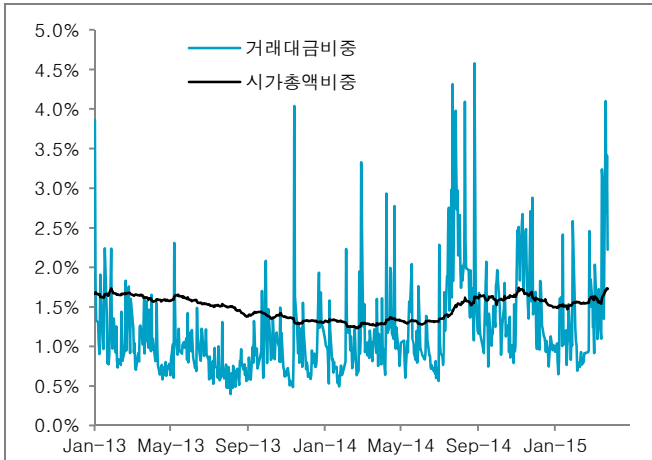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증권 업종의 거래대금비중과 시가총액비중 비율은 2013 년 이후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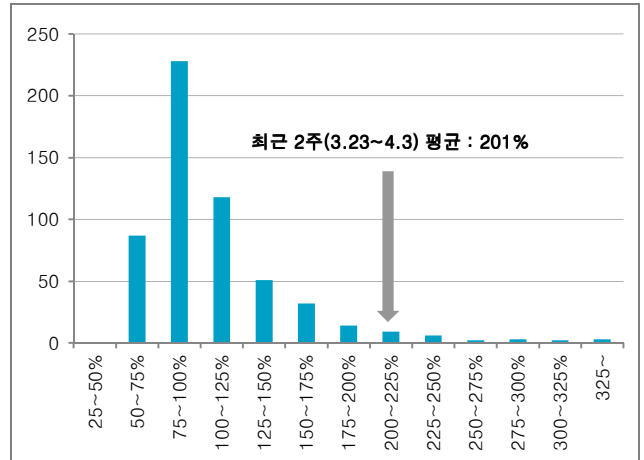
단기 과열 지표로써 증권 업종의 거래대금비중과 시가총액비중의 비율도 흥미롭습니다. 최근 증권업종의 거래대금 비중은 유가증권시장 기준 총 거래대금의 6%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최근 수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입니다. 시가총액비중이 1.9%이니 거래대금비중/시가총액비중의 비율은 308%까지 높아진 것이지요. 2013년 이후로는 가장 높습니다. 이 지표로 보자면 조만간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림 22] 증권 업종, 거래대금 및 시가총액 비중 추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23] 증권 업종의 '거래대금비중 대 시가총액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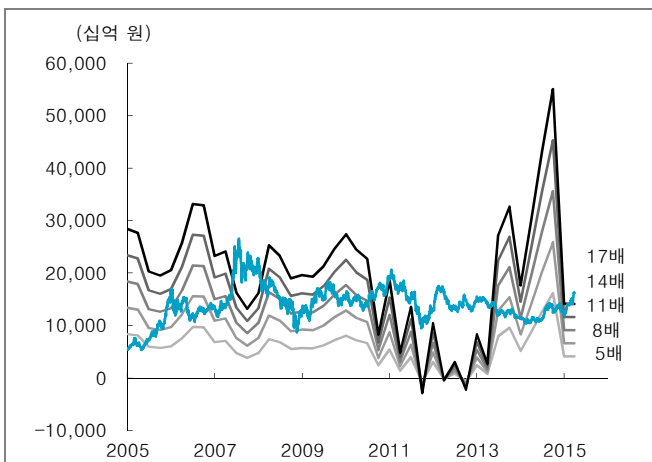


주: 2013년 이후 일별 비율 분포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증권주 재상승에는  
'지배구조, 경쟁력, 배당'  
등의 요소가 중요,  
단기 상승에는  
기업별 모멘텀이 가장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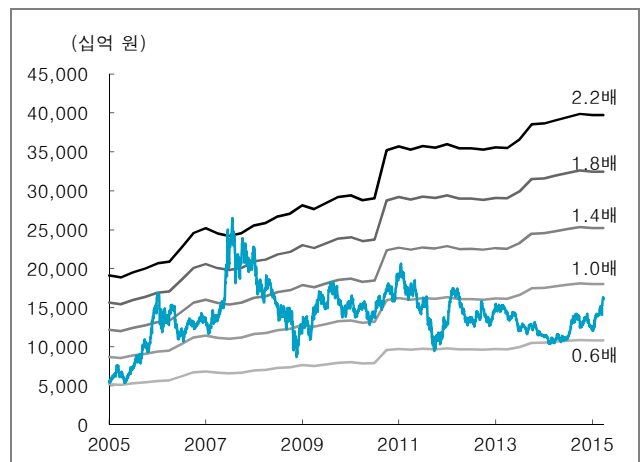
조정기간은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지요. 우리가 주목하는 하반기 미국의 금리 정책 향배, 이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시장이 요동친다면 단기에 20% 이상 하락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점에서 재상승을 노린다면 경쟁력, 배당, 그리고 신뢰할만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지배구조, 경쟁력, 배당'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단기적인 재상승을 노리신다구요? 그 때는 각 사의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림 24] 증권 업종 PE 밴드 차트



주: KIS Universe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25] 증권 업종 PB 밴드 차트



주: KIS Universe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표> 이번 주 주요 일정

6(월)	7(화)	8(수)	9(목)	10(금)
美> Kocherlakota 이사 연설  실적발표> 韓 삼성전자(잠정)	日> <b>BOJ 통화정책회의</b> (n/a, n/a, 0.1%) 2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1,212.5, 61.4)  유럽> 3월 소매 판매 MoM (n/a, -0.2%, 1.1%)  실적발표> 美 알코아	韓> <b>금통위 금리 결정</b> (n/a, 1.75%, 1.75%)  독일> 2월 산업생산 SA MoM (n/a, 0.1%, 0.6%)  실적발표> 美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월그린스	中> <b>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b> (n/a, 1.3%, 1.4%) 3월 신규대출 (~15일, 십억 위안) (n/a, 1,020, 1,050) 3월 M2 통화공급 YoY (~15일) (n/a, 12.3%, 12.5%)	

정리: 한국투자증권

## ■ Appendix 1 : 전주 동향 및 기업실적 추정치 변경

KOSPI는 한 주만에 재상승했다. 3월 말 1분기 윈도우 트레이딩 효과에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인한 국제유가 안정 기대감이 가세했다. 안심대출 20조 증액 뉴스에 은행주에 대한 규제 우려가 확산됐으나,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증시 전반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환율은 지난 주보다 10원 하락한 1,092.7원을 기록했고 국고 3년물 금리는 지난 주보다 7bp 하락한 1.73%로 마감했다.

지난 주는 거래대금 증가, 저금리에 따른 가계자금 이동에 대한 기대감과 2009년 이후 최대 실적이라는 전망에 대우증권(+13.8%), 한국금융지주(+11.9%), 현대증권(+11.0%) 등 증권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 원화 강세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롯데칠성(+12.0%), 오리온(+9.7%) 등 음식료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유가 하향 안정화 기대로 대한항공(+7.3%), 롯데케미칼(+12.3%), SK이노베이션(+12.3%) 등 운송, 정유/화학주도 강세를 보였다.

지난 주 증권(키움증권), 화학(한화케미칼)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추정치는 상향된 반면, 디스플레이(일진디스플레이), 유틸리티(지역난방공사)의 실적 추정치는 하향됐다.

〈표〉 업종별 주간 EPS 변화율 및 등락률 변화

Name	수익률 (%)			12MF EPS CHANGE (%)		12MF Valuation (X)	
	1W	1M	YTD	1W	1M	PER	PBR
에너지	4.41	-0.47	17.01	3.10	-0.21	10.77	0.74
소재	0.24	-1.49	8.93	2.50	1.91	11.25	0.76
화학	2.60	2.74	22.66	3.90	3.75	13.07	0.99
금속 및 광물	2.01	6.13	8.46	1.86	0.95	12.74	1.39
산업재	1.53	-0.87	7.87	1.77	2.54	16.36	1.09
자본재	1.22	-1.72	9.15	1.90	2.07	16.53	0.99
건설	2.30	-0.90	14.11	2.19	2.25	13.97	0.85
조선	1.13	-5.56	3.05	5.37	3.81	20.38	0.63
상업서비스	7.10	6.11	14.06	1.08	0.02	20.26	2.86
운송	2.06	2.57	-0.19	1.25	5.05	15.13	1.71
경기소비재	1.13	3.00	6.28	0.27	-0.31	8.94	0.98
자동차/부품	-0.78	-2.92	-4.38	0.00	-0.45	5.80	0.71
내구소비재/의류	4.33	13.72	29.15	1.90	2.81	24.24	3.29
소비자 서비스	3.53	5.85	16.61	1.54	-0.15	18.73	1.46
미디어	6.43	11.59	29.81	1.48	2.35	18.38	1.69
유통	0.20	6.81	8.00	0.07	-2.71	12.23	0.75
필수소비재	4.29	14.72	21.13	1.95	0.96	19.92	1.95
음식료/담배	5.35	13.78	20.66	1.96	0.60	18.76	1.72
생활용품	0.29	20.92	26.72	2.12	3.25	28.14	5.83
의료	1.79	24.80	34.52	1.83	2.10	23.29	2.09
제약/바이오	1.80	24.91	34.63	1.83	2.10	23.29	2.09
금융	2.60	3.48	0.98	1.13	1.27	10.11	0.66
은행	-0.07	-0.48	-2.66	0.61	0.64	7.83	0.49
기타금융	0.10	-3.04	-1.49	0.99	-5.99	8.80	0.68
증권	13.52	23.82	39.88	4.30	9.10	15.72	1.05
보험	1.09	-0.44	-9.63	0.98	-0.05	12.15	0.87
IT	-0.17	0.11	4.33	2.16	5.59	9.92	1.25
소프트웨어	-0.33	1.41	-4.22	1.05	-1.63	28.00	4.38
하드웨어	-5.18	3.71	22.57	2.42	7.72	16.86	1.15
반도체	0.30	-0.01	5.66	2.40	6.72	8.39	1.14
디스플레이	-2.03	-1.37	-5.02	-1.10	-0.83	8.00	0.87
통신서비스	-2.52	-4.19	-1.77	1.01	1.62	11.06	1.06
유틸리티	3.12	3.18	5.71	-4.62	-2.27	5.02	0.53

주 : 수익률은 전 주 마지막 거래일, 추정치는 그 직전일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 Appendix 2 : 주간 글로벌 업종별 등락을 상위/하위

지난 주 Bloomberg World Index 업종 중 상승률 상위은 석탄(+4.8%), 가전(+4.5%), 환경관리(+3.8%), 전자부품 및 장비(+3.8%), 그리고 대체에너지(+3.7%) 업종이 차지했다. 반면 바이오(-3.1%), 항공(-1.1%), 인터넷(-0.4%), 운송(-0.3%), 그리고 제약(-0.3%)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주에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 제약 업종의 약세가 눈에 띄었다. 그 동안 바이오시밀러 특허 만료와 업계 내 M&A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핫’했지만, 최근들어 ‘버블 논란’이 제기되며 약세로 전환했다. 약세 전환의 계기는 나스닥 바이오 업종 지수가 신고점을 달성했던 20일, 업종 내 시총 1위인 길리아드 사이언스에서 개발한 헤파티티스 C의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것이었다. 이후 WSJ 등 주요 언론에서 바이오 업종이 ‘2000년대 초반 IT 업종 버블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면서 길리아드(-2.6%), 암젠(-2.9%), 바이오젠(-3.8%) 등 업종 내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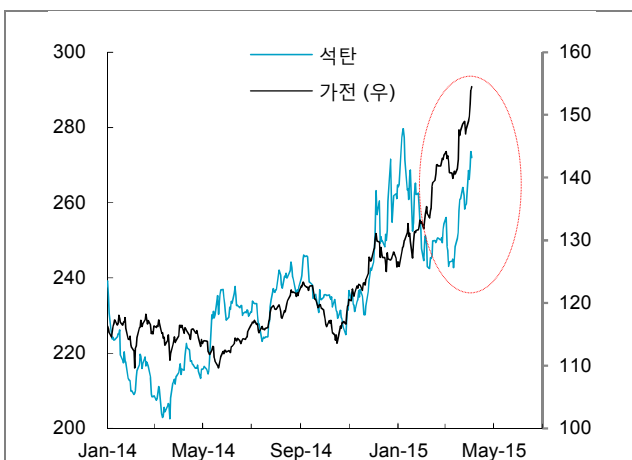
반면, 지난 주 상승한 업종들 중 상당수는 중국과 관련되거나, 중국 시장 내에서의 매출 성장 기대감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가전 업종에서 주목할만한 기업들은 중국의 백색가전 업체인 하이센스 쉼론, 하이얼, 그리고 한국의 쿠팡전자 등인데 세 기업 모두 중국 가전 시장 성장에 따른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다.

〈표〉 Bloomberg World Index 업종별 전주대비 수익률 상승/하락 상위

상승 상위	수익률 (%)	하락 상위	수익률 (%)
석탄	4.76	바이오	-3.13
가전	4.53	항공	-1.05
환경 관리	3.84	인터넷	-0.35
전자부품 및 장비	3.84	운송	-0.30
대체에너지	3.74	제약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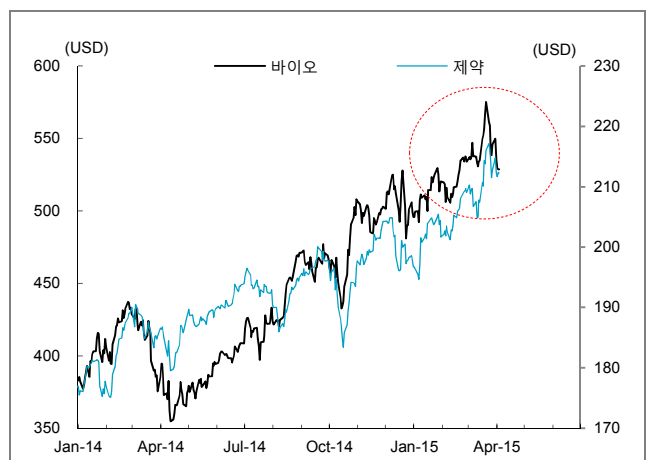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블룸버그 석탄 및 가전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블룸버그 바이오 및 제약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Appendix 3 : 주간 글로벌 주식형, 채권형 펀드 유출입

지난 주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입 방향은 또 엇갈렸다. 선진국(International, Pacific)에는 28.4억 달러가 유입된 반면, 신흥국(Asia ex-Japan, GEM)에는 1.4억 달러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채권형의 경우 글로벌, 미국, 이머징 채권형 펀드 모두 순유입세로 돌아섰지만,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이머징 통화 표기 채권은 순유출세가 지속됐다. 한편 하이일드 채권 펀드는 3주 연속 순유입세를 유지했고, 유입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	자산규모	한국비중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5년
선진국 투자펀드	International	2,050,081	1.4%	3,292.9	15,524	23,997
	Pacific	53,426	5.1%	157.3	484	818
신흥국 투자펀드	Asia ex-Japan	397,901	14.3%	-84.0	2,452	-257
	Global Emerging	460,266	9.6%	261.9	550	-3,609
	Latin America	27,628	-	-220.7	-684	-1,664
	Europe/Middle East/Africa	45,008	-	-29.4	246	130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표〉 글로벌 채권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별/시장별	자산규모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5
전체 채권 펀드 (미국+신흥국+인터내셔널+하이일드)		3,518,146	8,557	23,598	103,572
신흥국 채권 펀드 (EM bond totals)		248,710	450	-523	-494
	－ EM 경화(\$ ) 채권	108,706	585	679	1,190
	－ EM 신흥국 통화 채권	94,080	-107	-1,746	-2,449
	－ EM Blend 통화 채권	45,924	-28	544	765
인터내셔널 채권 펀드		1,111,945	3,262	11,808	32,165
하이일드형 채권 펀드		482,209	1,167	1,443	16,567
미국 채권 펀드 (US bond totals)		1,675,282	3,679	10,870	55,335
	－ Municipal	369,791	142	298	5,553
	－ Floating Rate	100,978	-51	-578	-3,890
	－ Inflation Protected	52,013	140	185	964
	－ Inter. Term Corp.	26,455	209	266	1,654
	－ Inter. Term Funds	402,856	1,394	5,215	17,549
	－ Inter. Term Gov.	27,654	94	175	1,274
	－ LT Bond	9,350	10	100	908
	－ LT Corp.	36,491	149	302	4,904
	－ LT Gov.	18,253	273	-789	-238
	－ MBS	81,336	446	1,129	5,606
	－ ST Bond	227,826	-689	-1,215	-4,996
	－ ST Corp.	33,984	67	194	951
	－ ST Gov.	37,612	-250	-17	838
	－ Total Return	250,683	1,745	5,606	24,259
기타 채권 펀드 (Other bond totals)		4,399,157	-50,433	-28,990	-31,987
	－ MMF 채권펀드	3,574,956	-53,392	-38,051	-56,711
	－ Balanced Funds	824,200	2,960	9,062	24,724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 경기부양기대, 지표 개선에 주요 이머징 강세

- ▶ 상해종합지수는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1% 상승
- ▶ 홍콩 증시는 부활절과 청명절 연휴로 휴장, 7일부터 다시 개장 예정
- ▶ 인도 증시는 Good Friday로 휴장, 4월 6일 개장 예정
- ▶ VN지수는 낙폭과대에 따른 인식 확산, 은행권 대출 증가율 확대 등으로 이틀 연속 강세 유지

상해종합 1.0% 상승  
환경보호, 증권, 반도체,  
자동차, 유통, 소재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1.0% 상승한 3,864p로 마감했다. 주간단위로는 4.7% 급등해 4주째 급등랠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래 최고점을 지속 경신 중이다. 3일 거래대금은 6,357억위안으로 전날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강세장에 베팅하는 심리가 고조됐다. 환경보호, 증권, 반도체, 자동차, 유통, 소재 등을 비롯한 대부분 업종들이 모두 강세로 마감했다. 중국정부가 군수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였고 중항비행기(000768), 중항기전(002013), 중항중기(600765), 성발과기(600391) 등이 5% 넘게 급등했다. 이번 달 말에 경진기 건설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에 소재, 인프라 관련주들도 상승했다. 미디어 산업들의 고속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에 절보전매(600633), 중문전매(600373), 당대동방(000673), 화의브라더스(300027), 화루바이나(300291) 등의 관련주들도 상한가 혹은 5%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 ■ 홍콩 시장

부활절과 청명절 연휴로 휴장, 7일부터 다시 개장 예정.

### ■ 인도네시아 시장

Good Friday로 휴장

### ■ 베트남 시장

VN지수 0.2% 추가 상승,  
가스, 은행, 증권 등 관련주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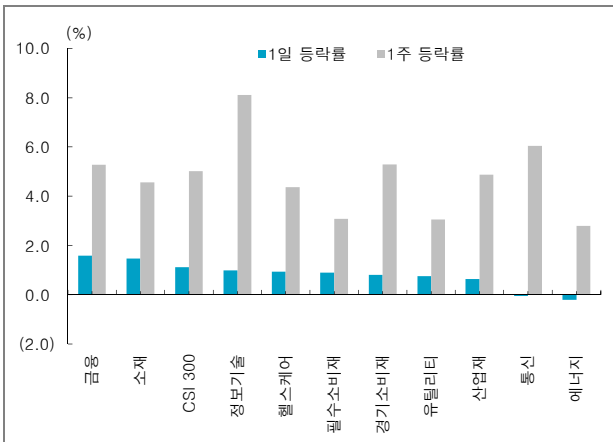
VN지수는 0.2% 추가로 상승하며 이들 연속 강세를 보였다. 최근 낙폭과대에 따른 인식 확산으로 매수여력이 강해진 가운데 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개선됐다는 소식으로 기업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진정됐다. 외국인은 순매수세를 유지해 가스, 은행, 증권, 통신, 전력 등 관련 대형주가 상승했다. 반면 부동산, 유제품, 보험, 설비기계 등 관련 업종은 하락했다.

### ■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중국, 3월 HSBC 서비스업 PMI 52.3으로 3개월래 신고치 경신 (전월치 52.0) 중국, 1분기 금융기관예금(동업자예금) 발행액 7천억위안으로 전년동월비 20배 급증 중국, 월간 IPO승인건수 30~50곳, 연말까지 누적 공모상장기업수 400여개사로 예상
베트남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6.2% 목표치 달성을 위해 더 노력할 것
베트남	3월 20일까지 은행권 대출 증가율 1.25% (작년 동기 -0.57%)
베트남	중앙은행, 올해 연초에 설정한 기준환율 목표를 조정하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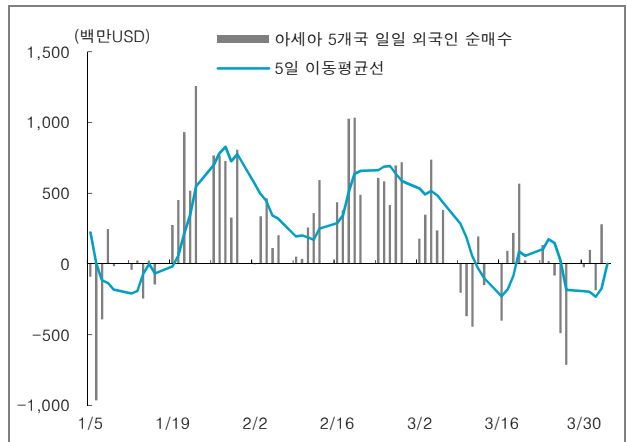
####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4/3(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3,863.93	1.00	4.68	3.10	19.45
홍콩 H	12,663.12	휴장	6.24	2.57	5.66
중국 차스닥	2,510.16	1.41	8.02	7.49	70.55
인도 SENSEX	28,260.14	1.08	0.53	1.08	2.77
인도네시아 JCI	5,456.40	휴장	1.63	-1.13	4.39
태국 SET	1,535.59	0.22	2.70	1.97	2.53
베트남 VN	547.85	0.18	-0.65	-0.60	0.41
MSCI 이머징마켓	992.86	1.01	3.63	1.88	3.82

주: 3일 오후 6시 30분 기준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양지수 모두 연중 최고치를 기록

- 미국증시는 3월 고용동향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확산된 가운데 경제지표 호조 및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사흘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과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상승을 주도하며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기록. 코스닥도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에 힘입어 1% 이상 강세를 보이며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660P선에 바짝 다가섬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국내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까지 더해지며 대림산업 등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증권주의 강세가 두드러짐. 또한, '뮤 오리진'의 사전예약 신청자가 하루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웹젠이 12% 이상 급등했으며, 넥슨이 게임빌이 일부 지분을 보유중인 모바일 게임 개발사 불리언게임즈를 인수함에 따라 시너지 기대감에 게임빌과 넥슨지티가 강세를, 신작 출시, 해외 모멘텀 등 개별 이슈 등으로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임.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각각 상호변경 및 분할상장한 골프존과 골프존유원홀딩스는 상장 첫날 각각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록하며 엇갈린 모습을 보임. 아울러, 최근 단기 급등했던 F&F, 한빛소프트, 바이오스마트 등은 차익실현 매물로 급락세를 연출

종목/테마	내 용
<b>골프존(215000)</b> <b>▶59,200(상한가)</b>	<b>교육부와 MOU 체결 소식에 분할, 변경 상장 첫날 상한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와 농산어촌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분할상장 첫날 상한가. 동사는 교육부가 지정한 학교에 인테리어를 포함한 골프시뮬레이터(GS) 설치, 골프클럽 제공, 골프 꿈나무 육성 지원 등을 담당하는 등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li> <li>- 골프존은 이날 지주회사인 골프존유원홀딩스와 사업회사인 골프존으로 각각 변경, 분할 상장함</li> </ul>
<b>대림산업(000210)</b> <b>▶66,700(+4.06%)</b>	<b>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일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 개발 중단 및 대(對)이란 경제 제재 해제를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해외 건설시장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며 건설주들이 강세</li> <li>- 국내 업체 중 이란 프로젝트 공사 수행 경험이 있는 곳은 동사를 비롯해 3개 업체정도로 2003년 이후 이란 프로젝트는 동사가 거의 독식해온 터라 이 지역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음??</li> </ul>
<b>증권주</b>	<b>1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금리 하락으로 증권시장으로 대거 자금이 유입된 가운데 상품 판매 증가 및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2009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li> <li>- 유진투자증권(001200, 상한가), SK증권(001510, +14.12%), 이트레이드증권(078020, +13.42%), 한화투자증권(003530, +13.16%), 유안타증권(003470, +9.54%), 대우증권(006800, +8.53%) 등 강세</li> </ul>
<b>게임주</b>	<b>신작 출시 및 해외 진출 기대감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작 출시 및 해외 시장 진출 모멘텀이 부각되며 강세. 국내 출시를 앞둔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의 흥행 기대감에 웹젠이 급등했으며, 게임빌은 2분기 해외 시장을 겨냥한 기대작 출시 및 넥슨과의 협업 기대감에 강세를 보임</li> <li>- 웹젠(069080, +12.05%), 게임빌(063080, +9.29%), 넥슨지티(041140, +6.83%), 컴투스(078340, +4.03%), 드래곤플라이(030350, +4.02%), 엔씨소프트(036570, +3.02%) 등 강세</li> </ul>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유가증권	IT	전기전자	삼영전자	15,800	13.3	금융	기타금융업	한국금융지주	65,700	11.9
	IT	서비스업	다우기술	18,800	21.3	금융	증권	키움증권	75,500	10.7
	IT	전기전자	디피씨	4,855	12.9	금융	증권	현대증권	8,990	11.0
	소재	서비스업	성창기업지주	34,700	37.2	금융	증권	미래에셋증권	55,600	10.1
	소재	기계	조선선재	81,800	18.6	금융	보험업	흥국화재	4,575	9.7
	소재	철강금속	한일철강	28,800	24.1	금융	증권	한양증권	8,650	9.1
	소재	철강금속	동양강철	6,990	24.8	산업재	비금속	한국유리	38,500	13.1
	소재	철강금속	대창	1,165	7.9	산업재	유통업	한샘	190,500	7.6
	소재	화학	한솔케미칼	58,600	18.6	산업재	건설업	화성산업	19,650	8.0
	소재	종이목재	신대양제지	41,300	8.0	산업재	미분류	에넥스	2,970	13.1
	소재	화학	동원시스템즈	39,700	18.9	산업재	서비스업	케이티스	5,270	36.5
	소재	서비스업	코오롱	35,400	8.4	산업재	건설업	코오롱글로벌	16,950	21.9
	소재	철강금속	부국철강	2,585	7.9	산업재	운수창고	동양고속	42,600	16.1
	소재	철강금속	만호제강	26,000	5.1	산업재	운수창고	대한항공	52,900	11.0
	소재	화학	롯데케미칼	219,500	8.4	산업재	운수창고	세방	22,800	3.6
	소재	화학	도레이케미칼	19,800	15.5	산업재	운수창고	대한항공우	20,700	10.7
	소재	화학	성보화학	59,400	4.9	건강관리	의약품	근화제약	24,850	24.9
	금융	증권	SK증권	1,455	36.0	건강관리	의약품	삼성제약	7,250	10.9
	금융	증권	한화투자증권	6,020	29.9	유틸리티	건설업	한전KPS	102,500	8.6
	금융	증권	유진투자증권	4,310	48.4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일정실업	29,600	13.4
	금융	증권	동부증권	6,460	25.2	경기소비재	미분류	삼익약기	5,130	27.0
	금융	증권	대우증권	14,000	13.8	경기소비재	전기전자	한국단자	72,100	6.3
	금융	증권	메리츠종합증권	6,040	15.5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경방	205,000	8.2
	금융	증권	골든브릿지증권	1,475	27.7	경기소비재	운수장비	대유에이텍	2,760	34.6
	금융	증권	유안타증권	7,120	30.6	경기소비재	화학	현대EP	9,350	11.4
	금융	증권	NH투자증권	15,200	10.9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BYC	318,500	5.8
	금융	증권	삼성증권	55,400	10.4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코웨이	99,400	7.8
	금융	증권	대신증권	13,050	13.5	필수소비재	음식료	오리온	1,243,000	9.7
코스닥	IT	정보기기	백산OPC	1,780	12.7	산업재	기타제조	디비케이	4,850	6.7
	IT	반도체	AP시스템	10,000	7.6	산업재	전문기술	한양이엔지	8,520	8.8
	IT	반도체	아이텍반도체	3,600	18.0	산업재	비금속	동양시멘트	6,180	11.2
	IT	소프트웨어	지트리비엔티	6,760	51.1	산업재	전문건설	우원개발	5,200	92.2
	IT	반도체	엘티에스	16,750	36.2	건강관리	도매	대한과학	9,950	18.6
	IT	인터넷	보타바이오	13,650	45.1	건강관리	제약	메타바이오메드	4,300	8.0
	IT	디지털컨텐츠	한빛소프트	10,900	14.5	건강관리	제약	경남제약	4,695	21.2
	IT	반도체	에스앤에스텍	6,120	13.8	건강관리	제약	대성미생물	82,800	20.5
	IT	소프트웨어	토탈소프트	2,800	23.9	건강관리	제약	삼아제약	14,700	6.1
	IT	반도체	지스마트글로벌	13,050	10.6	건강관리	제약	셀루메드	4,370	8.8
	금융	금융서비스	이트레이드증권	13,100	30.3	경기소비재	방송서비스	KMH	10,850	11.4
	금융	금융	에이티넬인베스트	1,945	19.7	경기소비재	사업지원	모두투어	35,350	7.3
	소재	화학	우노엔컴퍼니	4,790	9.0	경기소비재	전기전자	하츠	6,220	6.3
	소재	금속	디케이디앤아이	2,800	23.9	경기소비재	운송장비	오스템	2,455	7.2
	소재	금속	한국선재	3,520	16.9	경기소비재	통신장비	대명엔터프라이즈	1,595	13.9
	소재	금속	경남스틸	8,630	7.5	경기소비재	섬유의류	원풍물산	4,640	13.2
	산업재	금속	케이피티	7,360	31.9	경기소비재	소매	한국테크놀로지	3,955	16.3
	산업재	기타제조	에이스침대	161,300	38.0	경기소비재	운송장비	광림	2,045	6.5
	산업재	전문기술	시공테크	6,720	26.8	필수소비재	도매	엔알디	2,100	32.1
	산업재	화학	와토스코리아	18,400	19.9	필수소비재	음식료담배	국순당	7,500	17.7

주) 상기 종목들은 4월 03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 단기 유망종목: 영원무역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영원무역 (111770)	58,000 (+9.2)	53,100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류 OEM부문은 원화 약세, 방글라데시 인건비 상승 둔화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지역은 신규 바이어 위주로 고성장 예상</li> <li>연간 기준 두 자리수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원가 경쟁력과 높은 가격 협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 지속 전망</li> </ul>
솔루에타 (154040)	11,950 (-1.6)	12,150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폐 테이프 시장의 높은 성장성, 다변화된 거래처와 수직 계열화,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세 지속 예상</li> <li>전자파 차폐소재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와 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신제품 호조에 따른 실적 회복세를 고려할 때 여타 IT부품주들 대비 차별화된 성장성과 수익성 재부각 가능성 상존</li> </ul>
영풍정밀 (036560)	11,250 (+10.3)	10,200 (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밸브의 부진으로 2014년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저가 수주가 마무리됨에 따라 영업이익률 두 자리수대 회복</li> <li>제품믹스 개선, 매출 다변화, 증설효과 등을 감안할 때 2015년 실적 개선 모멘텀에 대한 기대 유효</li> <li>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의 지분가치가 시가총액의 150%(PBR 0.5배)로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매력 내재</li> </ul>
진성티이씨 (036890)	6,440 (+13.6)	5,670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향 매출은 장기공급계약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 글로벌 메이저 굴삭기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확대 추세 속에 Bobcat, Komatsu 등으로의 공급 물량 확대 예상. 해외 고객사 비중이 늘어나는 점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요인</li> <li>중국 인민은행의 기준을 인하 결정, ECB의 양적완화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기 재안정화 기대 유효</li> </ul>
오로라 (039830)	12,650 (-8.0)	13,750 (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캐릭터 완구 1위 업체로 캐릭터 라이선싱 및 머천다이즈로 사업 확장 중</li> <li>2015년 1월, '유후와 친구들' 시즌 3 방영 시작. 유럽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올해 전 세계 캐릭터 완구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지역에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계획</li> <li>생산능력 제고와 함께 경영 효율성 강화로 영업이익률 10%대 안착 예상</li> </ul>
바이오랜드 (052260)	26,750 (+9.2)	24,50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K그룹의 중국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 공략과 중국 해문공장 가동 본격화에 따른 성장성 재부각 가능성</li> <li>전방산업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다변화된 거래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li> </ul>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KCC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5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KCC (002380)	535,000 (-5.0)	563,000 (3/31)	3,528	329	260	26,571	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자재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재료 매입액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li> <li>- 2014년 기말 배당금을 6년만에 주당 8천원으로 1천원 상향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li> <li>- 안정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풍부한 자산가치를 감안할 때 재평가 가능성 상존</li> </ul>				
현대모비스 (012330)	241,000 (-2.8)	248,000 (2/2)	38,488	3,297	4,058	42,468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라인업 강화와 준중형모델들의 ADAS(운전보조장치) 채택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예상</li> <li>- 현대/기아차의 누적 판매 대수 확대에 따른 AS부품 판매의 구조적 증가와 이익 방어력을 주목할 필요</li> <li>- 견고한 펀더멘털 및 글로벌 peer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li> </ul>				
엔씨소프트 (036570)	187,500 (+3.9)	180,500 (1/2)	861	266	220	11,035	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 가운데 기존 게임의 ARPU 상승과 길드워2 확장팩 출시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세 지속 예상</li> <li>- 리니지1의 수익성 높은 신규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의 추가 구성상품 선택을 통한 ARPU 상승 예상</li> <li>- 2015년에는 블레이드앤소울 TCG, 패션스트리트, 팜야 등 모바일 게임 다수 출시 예정</li> </ul>				
LG하우시스 (108670)	161,500 (+1.3)	159,500 (1/2)	3,137	163	123	12,279	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PVC 창호, 바닥재 등 건자재 건자재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자동차, 가전관련 소재도 거래처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기 가능할 전망</li> <li>- PVC, 가소제, MMA 등 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원재료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li> <li>- 미국에 자동차 원단 공장 증설, B2C 건자재 확대(온라인 '지인몰' 오픈 등) 등 다각적 투자를 통한 장기 성장동력 강화</li> </ul>				
LG생활건강 (051900)	790,000 (+27.8)	618,000 (1/2)	5,083	600	427	25,640	3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에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 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실적은 개선세 지속 예상</li> <li>-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li> </ul>				
SK하이닉스 (000660)	44,200 (-7.4)	47,750 (1/2)	19,340	6,100	5,180	7,120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버, 모바일, 그래픽 등 D램 수요 확대로 D램 가격 안정세 지속</li> <li>- 애플 및 OEM 수요,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15년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li> <li>- 영업활동을 통한 순현금 창출능력을 감안할 때 자사주 취득 및 주주배당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유효</li> </ul>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생활건강, 엔씨소프트,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KCC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3/27(금)	3/30(월)	3/31(화)	4/1(수)	4/2(목)	4/3(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19.80	2,030.04	2,041.03	2,028.45	2,029.07	2,045.42
	등락폭	-2.76	10.24	10.99	-12.58	0.62	16.35
	등락종목	상승(상한)	508(14)	485(10)	425(11)	451(8)	556(7)
		하락(하한)	305(2)	321(0)	395(0)	340(1)	253(1)
	ADR	103.68	106.05	107.07	108.28	107.42	111.29
	이격도	10 일	99.58	99.87	100.36	99.74	99.81
		20 일	100.47	100.90	101.34	100.64	100.60
	투자심리	50	50	5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449	440	556	543	656	493
	거래대금 (십억 원)	5,111	4,465	5,367	5,386	6,007	4,452
코스닥	코스닥지수	640.12	646.74	650.49	650.23	650.57	658.04
	등락폭	-2.41	6.62	3.75	-0.26	0.34	7.47
	등락종목	상승(상한)	508(8)	485(15)	425(12)	451(15)	685(9)
		하락(하한)	305(2)	321(1)	395(4)	340(6)	308(2)
	ADR	95.48	97.97	97.37	95.29	94.92	98.56
	이격도	10 일	100.20	101.06	101.42	101.04	100.80
		20 일	101.07	101.92	102.31	102.11	102.01
	투자심리	50	50	5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592	467	525	513	630	522
	거래대금 (십억 원)	3,213	2,722	3,358	2,946	3,674	3,214

###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828.1	709.6	880.5	167.9	108.9	149.5	95.2	26.3	332.684
	매도	2,951.0	668.8	793.3	167.7	92.5	217.5	58.5	17.1	239.9
	순매수	-122.9	40.8	87.2	0.2	16.3	-68.0	36.7	9.2	92.8
	4월 누계	99.1	-48.3	-66.1	33.2	-5.8	-178.5	-51.2	6.0	130.3
	15년 누계	-1,304.7	3,098.8	-3,052.4	-2,278.9	67.5	-2,748.6	-423.9	121.9	2,209.5
코스닥	매수	2,899.7	154.9	162.9	44.9	16.6	34.8	18.9	6.8	40.9
	매도	2,935.0	113.9	162.4	46.3	13.1	57.8	11.0	4.4	29.8
	순매수	-35.3	40.9	0.5	-1.4	3.5	-23.0	7.8	2.4	11.1
	4월 누계	11.2	33.0	-32.8	-28.7	15.6	-38.6	-11.9	1.2	29.6
	15년 누계	532.3	-179.8	193.2	-108.2	173.9	-37.8	-94.6	24.2	235.7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건설업	7,445	화학	-21,680
증권	3,815	운수장비	-11,731
보험	1,952	전기,전자	-9,340
대림산업	4,349	현대차	-12,328
현대산업	4,065	KODEX 200	-10,427
삼성생명	2,788	아모레퍼시픽	-6,707
SK이노베이션	2,308	SK하이닉스	-6,366
고려아연	2,147	제일모직	-5,840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32,066	유통업	-9,903
증권	30,715	화학	-6,296
운수창고	13,012	금융업	-3,445
삼성전자	37,270	SK하이닉스	-29,130
대우증권	18,291	제일모직	-6,290
SK이노베이션	7,718	LG화학	-6,147
S-Oil	7,504	아모레퍼시픽	-4,128
SK C&C	6,940	LG전자	-3,95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127	운수창고	-481
서비스업	1,518	보험	-191
유통업	1,141	기계	-189
삼성전자	1,149	KODEX 200	-1,021
LG생명과학	1,033	한국콜마홀딩스	-682
다우기술	801	KINDEX200	-521
삼성중공업	616	코라오홀딩스	-519
신한지주	602	메리츠증권	-40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9,736	전기,전자	-7,518
증권	8,845	유통업	-6,225
화학	5,521	통신업	-1,640
삼성증권	3,808	TIGER 200	-6,269
삼성전자	3,127	SK하이닉스	-5,101
현대중공업	3,058	LG디스플레이	-4,555
코오롱인더	2,398	KODEX 200	-1,910
대한항공	2,112	KINDEX200	-1,789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증권	66,067	전기,전자	-19,730
서비스업	37,393	유통업	-19,429
건설업	20,000	운수장비	-14,177
삼성전자	43,410	SK하이닉스	-45,061
KODEX 레버리지	28,088	현대차	-20,804
대우증권	24,515	제일모직	-17,611
SK이노베이션	19,320	KODEX 인버스	-13,381
현대중공업	11,995	NAVER	-12,677
롯데케미칼	11,918	LG디스플레이	-11,025
삼성증권	11,834	아모레퍼시픽	-10,182
NH투자증권	11,808	현대모비스	-9,948
SK C&C	11,579	삼성물산	-5,743
KODEX 200	10,599	SK텔레콤	-5,449

외		국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32,368	전기,전자	-58,003
운수장비	19,442	의약품	-8,743
유통업	17,073	섬유,의복	-2,714
NAVER	12,225	삼성전자	-41,271
아모레퍼시픽	8,486	SK하이닉스	-16,554
현대차	8,006	대림산업	-4,314
제일모직	7,515	롯데케미칼	-4,166
코웨이	7,258	신한지주	-3,910
LG	6,174	SK C&C	-3,545
휠라코리아	4,942	삼성생명	-2,819
대한항공	4,722	KODEX 인버스	-2,504
엔씨소프트	4,327	삼성엔지니어링	-2,488
현대건설	4,198	영원무역	-2,46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2,746	소프트웨어	-22,806
반도체	1,543	화학	-4,796
디지털컨텐츠	1,199	전문기술	-3,770
파라다이스	2,928	골프존유원홀딩스	-21,538
AP시스템	1,368	시공테크	-3,091
컴투스	1,347	에이블씨엔씨	-2,331
NICE평가정보	1,126	씨티씨바이오	-990
삼성엘엔에스	1,109	솔브레인	-851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소프트웨어	722	전문기술	-492
오락,문화	438	일반전기전자	-413
디지털컨텐츠	422	제약	-233
파라다이스	438	CJ E&M	-545
컴투스	411	파세코	-413
키이스트	353	엠케이전자	-217
한국사이버결제	286	바이로메드	-209
KG모빌리언스	254	이테크건설	-168

(체결기준: 백만원)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8,430	소프트웨어	-30,068
오락,문화	8,017	화학	-7,193
제약	5,021	인터넷	-2,494
파라다이스	8,071	골프존유원홀딩스	-30,215
컴투스	6,318	시공테크	-3,402
셀트리온	5,243	솔브레인	-2,871
삼성엘엔에스	4,578	바이넥스	-2,104
CJ E&M	3,826	다음카카오	-1,861
이오테크닉스	3,132	에이블씨엔씨	-1,320
로만손	2,674	CJ오쇼핑	-1,123
토비스	2,344	동원개발	-1,107
AP시스템	1,821	차바이오텍	-1,097
블루콤	1,349	KG모빌리언스	-982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의료,정밀기기	1,522	음식료,담배	-2,122
제약	609	반도체	-1,438
운송장비,부품	414	종이,목재	-1,298
로만손	1,150	매일유업	-2,126
리노공업	701	삼성엘엔에스	-1,298
뷰웍스	601	골프존유원홀딩스	-1,105
세운메디칼	545	이오테크닉스	-611
피에스텍	475	테스	-360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8,430	소프트웨어	-30,068
오락,문화	8,017	화학	-7,193
제약	5,021	인터넷	-2,494
파라다이스	8,071	골프존유원홀딩스	-30,215
컴투스	6,318	시공테크	-3,402
셀트리온	5,243	솔브레인	-2,871
삼성엘엔에스	4,578	바이넥스	-2,104
CJ E&M	3,826	다음카카오	-1,861
이오테크닉스	3,132	에이블씨엔씨	-1,320
로만손	2,674	CJ오쇼핑	-1,123
토비스	2,344	동원개발	-1,107
AP시스템	1,821	차바이오텍	-1,097
블루콤	1,349	KG모빌리언스	-982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8,408	제약	-4,072
IT부품	7,984	소프트웨어	-2,275
오락,문화	7,917	인터넷	-2,201
파라다이스	7,282	셀트리온	-2,615
게임빌	4,789	다음카카오	-2,564
컴투스	2,557	메디톡스	-2,423
AP시스템	2,251	골프존유원홀딩스	-1,977
이오테크닉스	2,085	조이시티	-1,319
아모텍	2,051	CJ E&M	-1,289
아가방컴퍼니	1,503	인바디	-1,082
에스텍파마	1,195	마크로젠	-1,036
리젠	1,117	바이로메드	-901
코리아나	1,111	셀바이오텍	-79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일성신약	34 일	효성	23 일
삼성증권	14 일	삼성정밀화학	21 일
롯데케미칼	12 일	대한제분	17 일
KODEX 은선물(H)	11 일	삼성카드	17 일
에스원	10 일	LG	15 일
KODEX 골드선물(H)	10 일	제일모직	12 일
KT&G	9 일	세방전지	11 일
S-Oil	7 일	경방	10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파라다이스	9 일	모두투어	18 일
SBS콘텐츠허브	6 일	실리콘웍스	12 일
인터파크	5 일	동진세미캠	8 일
SK브로드밴드	3 일	하이록코리아	5 일
덕산하이메탈	3 일	심텍	5 일
메디포스트	3 일	우리이티아이	5 일
동양시멘트	2 일	비에어치아이	5 일
인터플렉스	2 일	GS홈쇼핑	4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SK이노베이션	71,061	NAVER	55,580
삼성전자	50,453	KB금융	51,658
S-Oil	46,034	아모레퍼시픽	41,717
롯데케미칼	44,346	SK이노베이션	29,414
대우증권	38,562	대한항공	23,247
현대엘리베이	31,011	삼성물산	22,461
도레이케미칼	28,434	LG디스플레이	19,405
삼성증권	25,623	효성	18,550

KOSDAQ			
기	관	외	국 인
파라다이스	21,089	CJ오쇼핑	5,828
CJ E&M	9,225	게임빌	5,778
셀트리온	7,903	이라이콤	4,577
인바디	7,246	이오테크닉스	4,309
로만손	7,141	AP시스템	4,070
토비스	5,011	NICE평가정보	2,920
C&S자산관리	4,305	리홈쿠첸	2,666
SK브로드밴드	3,295	넥슨지티	2,641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서비스업	37,393	32,368	69,761
증권	66,067	2,330	68,397
건설업	20,000	6,301	26,302
KODEX 레버리지	28,088	893	28,981
SK이노베이션	19,320	2,894	22,214
현대중공업	11,995	2,918	14,912
삼성증권	11,834	2,257	14,091
엔씨소프트	9,438	4,327	13,765
대한항공	8,583	4,722	13,305
GS건설	3,807	3,935	7,742
현대건설	1,855	4,198	6,053
현대엘리베이	5,648	277	5,926
삼성에스디에스	1,860	3,759	5,619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디지털컨텐츠	8,430	8,408	16,838
오락,문화	8,017	7,917	15,934
반도체	2,671	5,047	7,718
파라다이스	8,071	7,282	15,353
컴투스	6,318	2,557	8,876
게임빌	802	4,789	5,591
이오테크닉스	3,132	2,085	5,216
산성엘엔에스	4,578	594	5,172
AP시스템	1,821	2,251	4,072
아모텍	25	2,051	2,076
위메이드	1,207	765	1,972
블루콤	1,349	523	1,872
아가방컴퍼니	97	1,503	1,60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LG	30 일	휴켄스	16 일
LG전자	25 일	동국제강	11 일
KPX케미칼	22 일	KINDEX 레버리지	11 일
모토닉	20 일	신세계	10 일
한라비스테온공조	20 일	KPX케미칼	10 일
금호석유	18 일	동아쏘시오홀딩스	8 일
한국가스공사	14 일	대웅제약	7 일
현대차	13 일	한화생명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이테크솔루션	90 일	셀트리온	8 일
하이록코리아	9 일	에스앤유	7 일
서울반도체	9 일	차바이오텍	5 일
네패스	8 일	젠타	4 일
GS홈쇼핑	5 일	동양시멘트	3 일
신화인터텍	5 일	서울반도체	3 일
크레듀	5 일	아미노로직스	3 일
포스코 ICT	4 일	인터파크	2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제일모직	-104,283	POSCO	-48,541
현대차	-94,340	삼성전자	-47,628
NAVER	-71,898	SK하이닉스	-42,955
SK하이닉스	-58,724	LG생활건강	-35,996
아모레퍼시픽	-53,740	삼성전기	-29,450
현대글로벌비스	-42,204	신한지주	-26,662
기아차	-41,748	KT&G	-16,083
삼성물산	-40,674	삼성중공업	-15,840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한국토지신탁	-11,417	셀트리온	-18,626
다음카카오	-11,021	삼성엘앤에스	-11,920
이오테크닉스	-6,296	성우하이텍	-5,491
서울반도체	-4,961	인바디	-5,349
시공테크	-3,983	에스엠	-4,603
KG모빌리언스	-3,685	웹젠	-3,079
실리콘웍스	-2,807	서울반도체	-2,971
바이넥스	-2,761	조이시티	-2,919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19,730	-58,003	-77,732
의약품	-1,387	-8,743	-10,130
통신업	-8,904	-1,017	-9,921
SK하이닉스	-45,061	-16,554	-61,615
KODEX 인버스	-13,381	-2,504	-15,885
LG디스플레이	-11,025	-1,941	-12,965
신한지주	-2,456	-3,910	-6,367
SK텔레콤	-5,449	-2	-5,451
LG전자	-4,723	-568	-5,291
LG생명과학	-3,012	-1,382	-4,394
금호석유	-2,127	-1,760	-3,886
하나금융지주	-3,683	-194	-3,877
LG화학	-2,603	-650	-3,254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소프트웨어	-30,068	-2,275	-32,343
인터넷	-2,494	-2,201	-4,695
연구,개발	-98	-2,013	-2,111
골프존유원홀딩스	-30,215	-1,977	-32,192
다음카카오	-1,861	-2,564	-4,425
시공테크	-3,402	-110	-3,512
메디톡스	-383	-2,423	-2,806
조이시티	-545	-1,319	-1,864
KG모빌리언스	-982	-580	-1,563
차바이오텍	-1,097	-438	-1,535
바이로메드	-349	-901	-1,250
서울반도체	-521	-631	-1,152
에프티앤이	-939	-137	-1,07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SK하이닉스	303	13,492	
제일모직	82	11,710	
삼성전자	7	10,166	
NAVER	15	9,222	
S-Oil	134	9,067	
BS금융지주	584	8,963	
삼성중공업	476	8,670	
LG전자	124	7,18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57	11,086	
다음카카오	64	7,035	
파라다이스	248	5,896	
서울반도체	218	4,073	
바이로메드	41	2,995	
씨젠	46	1,716	
위메이드	31	1,260	
젬백스	63	1,253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740	6,797,338	
현대중공업	10,771	1,287,145	
POSCO	4,847	1,143,944	
SK하이닉스	22,463	1,006,339	
삼성에스디에스	3,641	948,594	
현대차	4,823	790,913	
아모레퍼시픽	234	762,324	
대우조선해양	41,436	741,70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9,951	1,416,509	
다음카카오	6,262	684,383	
CJ E&M	419	551,342	
컴투스	1,577	297,341	
파라다이스	11,350	271,268	
위메이드	1,712	246,144	
서울반도체	7,633	143,115	
에스엠	3,887	136,641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전기,전자	5,123	운수창고	-5,346
운수장비	4,152	서비스업	-2,757
금융업	3,488	건설업	-998
LG디스플레이	2,012	대한항공	-3,668
BS금융지주	1,837	현대상선	-2,316
대우조선해양	1,601	STX엔진	-1,557
SK하이닉스	1,599	대우건설	-954
현대제철	1,430	한화생명	-946
삼성중공업	1,146	제일기획	-895
팬오션	1,090	SH에너지화학	-590
한솔홈데코	1,033	GKL	-573
기아차	970	스카이라이프	-527
KB금융	930	삼성엔지니어링	-52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IT부품	1,493	음식료,담배	-1,176
종합건설	1,359	인터넷	-369
통신서비스	1,109	금융서비스	-229
사회건설	1,302	이지바이오	-1,432
파트론	1,145	HB테크놀로지	-425
인터파크	1,042	다음카카오	-296
SK브로드밴드	855	선데이토즈	-176
케이엘티	800	SBI인베스트먼트	-172
로만손	450	캠시스	-167
씨케이에이치	340	플렉스컴	-157
KG이니시스	332	CMG제약	-153
성우하이텍	330	솔리드	-152
태광	305	심텍	-143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3/30(월)	3/31(화)	4/1(수)	4/2(목)	4/3(금)
외국인	3,098.8	-48.3	165.4	76.3	137.4	-70.7	-18.3	40.8
기관계	-3,052.4	-66.1	-251.1	-78.2	-106.8	-82.9	-70.5	87.2
(투신)	-2,748.6	-178.5	-292.8	-70.5	-43.8	-56.1	-54.4	-68.0
(연기금)	2,641.6	147.5	80.8	-73.0	6.4	-4.3	58.9	92.9
(은행)	121.9	6.0	-12.3	-15.4	-2.8	-3.6	0.3	9.2
(보험)	67.5	-5.8	-15.8	3.0	-13.0	9.2	-31.3	16.3
개인	-1,304.7	99.1	88.4	16.0	-26.7	122.3	99.7	-122.9
기타	1,258.3	15.2	-2.7	-14.0	-3.9	31.3	-11.0	-5.1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3/27(금)	3/30(월)	3/31(화)	4/1(수)	4/2(목)
KOSPI	1,997.1	2,011.3	1,915.6	2,019.8	2,030.0	2,041.0	2,028.5	2,029.1
고객예탁금	18,014.3	14,211.8	15,842.5	18,889.4	18,200.8	18,362.5	19,224.4	19,159.1
(증감액)	334.1	-3,802.5	1,630.7	528.7	-688.6	161.7	861.9	-65.3
(회전율)	26.7	29.9	34.0	44.1	39.5	47.5	43.3	50.5
실질예탁금증감	-13,998.7	-10,125.7	-2,121.1	500.8	-379.2	380.3	820.8	-100.5
신용잔고(KOSPI)	2,202.9	2,289.7	2,533.3	2,966.4	2,980.4	2,977.1	3,013.0	3,028.6
신용잔고(KOSDAQ)	1,709.5	1,893.1	2,537.4	3,462.1	3,476.1	3,493.3	3,508.5	3,528.1
미수금	1,241.0	929.0	1,176.0	110.8	139.2	147.4	143.1	146.2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3/27(금)	3/30(월)	3/31(화)	4/1(수)	4/2(목)
전체 주식형	78,705	-1,498	-45	-31	116	181	39	-85
(ex. ETF)		-1,387	-71	-34	-32	106	-61	-10
국내 주식형	62,258	-1,832	-71	-67	84	93	12	-82
(ex. ETF)		-1,736	-96	-70	-64	19	-88	-8
해외 주식형	16,447	334	25	36	32	88	28	-2
(ex. ETF)		349	25	36	32	88	28	-2
주식 혼합형	9,968	-599	36	-1	-21	-39	-4	40
채권 혼합형	25,495	-1,819	165	16	55	-24	45	120
채권형	77,333	4,690	408	148	-36	196	62	346
MMF	106,174	23,436	4,728	-614	-181	-4,632	536	4,19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3/30(월)	3/31(화)	4/1(수)	4/2(목)	4/3(금)
한 국	2,770	-44	803	69	124	-64	-17	37
대 만	3,717	-49	654	-46	-65	-218	170	-
인 도	5,817	0	813	44	-	-	-	-
인도네시아	495	59	769	-14	67	38	21	-
태 국	-301	-44	657	2	32	-68	23	-
남아공	1,481	176	667	162	233	176	-	-
필리핀	1,080	12	96	45	39	12	-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4년말	3/27(금)	3/30(월)	3/31(화)	4/1(수)	4/2(목)	4/3(금)
회사채 (AA-)	2.43	2.03	2.01	1.99	1.99	1.99	1.98
회사채 (BBB-)	8.26	7.93	7.91	7.89	7.88	7.88	7.87
국고채 (3년)	2.10	1.77	1.75	1.72	1.72	1.72	1.71
국고채 (5년)	2.28	1.85	1.82	1.80	1.80	1.80	1.80
국고채 (10년)	2.60	2.18	2.15	2.16	2.15	2.12	2.09
미 국채 (10년)	2.20	1.96	1.95	1.92	1.86	1.91	-
일 국채 (10년)	0.33	0.38	0.37	0.41	0.39	0.34	-
원/달러	1,099.30	1,103.30	1,104.90	1,109.50	1,102.40	1,095.50	1,092.70
원/엔	920.30	926.68	921.45	925.51	922.13	914.75	912.41
엔/달러	119.45	119.06	119.91	119.88	119.55	119.76	119.76
달러/유로	1.22	1.09	1.08	1.07	1.08	1.09	1.09
DDR3 1Gb (1333MHz)	1.34	1.27	1.26	1.25	1.25	1.25	-
DDR3 2Gb (1333MHz)	2.21	2.17	2.16	2.16	2.15	2.15	-
NAND Flash 16Gb (MLC)	2.18	1.95	1.93	1.93	1.92	1.92	-
CRB 지수	233.24	215.70	214.79	212.39	216.67	216.63	-
LME 지수	2,907.6	2,771.5	2,779.1	2,750.8	2,758.3	2,755.4	-
BDI	782	596	599	602	596	588	-
유가 (WTI, 달러/배럴)	53.61	48.87	48.68	47.60	50.09	49.14	-
금 (달러/온스)	1,185.50	1,195.75	1,185.50	1,187.00	1,197.00	1,198.5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30	31	4/1	2	3
美> Yellen 연준의장 연설 日> 2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3.4%, -1.9%, 3.7%) 독일> 3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 MoM (0.5%, 0.4%, 0.9%)	美> 3월 소비자대지수 (101.3, 96.4, 96.4) 유럽> 2월 실업률 (11.3, 11.2%, 11.2%)	韓> 3월 수출 YoY (-4.2%, -1.9%, -3.4%)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4%, 0.4%, 0.5%) 美> 3월 ISM 제조업지수 (51.5, 52.5, 52.9) 中> 3월 HSBC 제조업 PMI (49.6, 49.3, 49.2) 3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50.1, 49.7, 49.9) 유럽> 3월 마켓 제조업 PMI (52.2, 51.9, 51.9)	美> 2월 무역수지(십억 달러) (-35.4, -41.2, -41.8) 日> 3월 본원통화 YoY (35.2%, n/a, 36.7%)	美> 3월 실업률 (n/a, 5.5%, 5.5%) 3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천명) (n/a, 250, 295)
6	7	8	9	10
	美> Kocherlakota 연준이사 연설  실적발표> 韓 삼성전자(잠정실적)	日> <b>BOJ 통화정책회의</b> (n/a, n/a, 0.1%) 2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1,212.5, 61.4)  유럽> 3월 소매판매 MoM (n/a, -0.2%, 1.1%)  실적발표> 美 알코아	韓> <b>금통위 금리 결정</b> (n/a, 1.75%, 1.75%)  독일> 2월 산업생산 SA MoM (n/a, 0.1%, 0.6%)  실적발표> 美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中> <b>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b> (n/a, 1.3%, 1.4%) 3월 신규대출 (~15일, 십억 위안) (n/a, 1,020, 1,050) 3월 M2 통화공급 YoY (~15일) (n/a, 12.3%, 12.5%)
13	14	15	16	17
日> 2월 기계수주 MoM 中> 3월 수출 YoY 3월 수입 YoY	美> 3월 소매판매 추정 MoM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韓> 3월 실업률 日> 2월 광공업생산 MoM 中> 1분기 GDP YoY 3월 광공업생산 YoY 美> 3월 광공업생산 MoM 독일> 3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美> 3월 주택착공건수	美> 3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4월 예비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유럽>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